

2015 한기문예전

작품공모

한기가족의 문예 창작활동 활성화를 통해
정서 함양과 문화적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실시되는
'2015년도 한기 문예전'의 작품을 공모합니다.



■ 모집부문

- ◇ 주제 : 자유선택
- ◇ 작품규격 : A4 또는 200자 원고지 / 4절지 또는 10호 캔버스
 - 일반·시(시조) : 1인 2편 이상 ~ 3편 이내
 - 수필 : 1인 1편(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또는 A4용지 2~3매)
 - 공트 : 1인 1편(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또는 A4용지 3~4매)
 - 회화서예 : 4절지 또는 10호 캔버스(표구되지 않은 원작품)
 - 아동·시 : 1인 2편
 - 산문 : 1인 1편(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또는 A4용지 2~3매)
 - 회화 : 4절지 또는 10호 캔버스(표구되지 않은 원작품)
- ※ 시, 수필, 공트 등 문예작품은 A4 및 200자 원고지로 작성 가능
- A4 작성 : 글씨체 휴먼영조 13PT / 줄간격 160
- ※ 회화/서예는 정해진 규격에 따른 작품 제출

■ 응모자격

- ◇ 일반
 - 재직중인 임직원 및 가족(배우자, 양가부모, 미혼 자녀 포함)
 - 응모 마감일 기준 재직중인 협력업체 직원
- ◇ 아동
 - 재직중인 임직원의 유치원 ~ 초등학교생 자녀

■ 작품접수

- ◇ 접수기간 : 2015.10.22(목) ~ 10.30(금)
 - 우편으로 접수 시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 ◇ 접수처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우39660) 한국전력기술(주) 홍보실
 - 응모작품에 소속(가족은 직원관의 관계), 성명 등을 정확히 기재
 -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문의사항 : 홍보실(Tel : 054-421-5849)

■ 유의사항

- 순수 창작으로서 사내·외에 발표 및 공개되지 않은 작품만 응모 가능
- 미풍양속에 벗어나지 않는 작품일 것
- 당선작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 귀속(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각 응모부분별 수준작이 없을 경우 당선작 없음으로 처리
- 입상 작품의 표절 및 복제, 도용, 무단전재 등이 인정될 시 입상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된 작품은 김천신사옥 공간 구성·정리 등을 위한 용도로써 전시될 수 있음



Family



2015년 9월호



Family



E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힘.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KEPCO E&C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 04 **Focus** | 김천 신사옥 입주 환영행사 열려 외
- 08 **명품기술** | Non-LOCA 최적 안전해석 방법론 개발

&And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KEPCO E&C Family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 12 **우체통** | 신입(인턴)사원 교육을 마치며
- 16 **일하며 즐기며** | 동온하청(冬溫夏淸) 밀양 얼음골 외
- 22 **문예** | 꿈꾸고 계신가요?
- 24 **Photo Gallery** | 한기가족 사진 콘테스트



C

더 현명하게, 더 여유롭게
더 건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과 소통합니다.

- 28 **新성장지도** | 내몽고의 별, 시라무런 초원과 후허하오터
- 34 **Storytelling** | 가야산에서 풍류를 즐기며 신선이 된 기분을 느끼다
- 36 **기자칼럼** | 중소기업 대통령 시대, 진정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 38 **생활과 과학** | 미스터리 불빛과 지진 예지
- 40 **Culture** | Exhibition, Musical, Book, Movie
- 42 **KEPCO E&C News** | 오산열병합발전소 기동용 보일러 점화 외
- 44 **Inside Outside** | 동호회 동정 외
- 46 **인포메이션** | 구매 한달 후 파손된 축구화제품 불량일까, 소비자 부주의일까?
- 47 **에코포토** | 다시. 날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경제
영광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성장

통권 404호 · 발행인 박구원
발행일 2015년 9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 메 일 business@kepco-enc.com
인 쇄 위즈(070-8808-7990)

김천 신사옥 입주 환영행사 열려

김천시민들의 따뜻한 환영 속에
상생·협력 다짐

우리 회사 신사옥 입주 환영행사가 8월 20일 김천혁신도시 신사옥에서 열렸다.

이날 환영행사에는 박구원 사장과 박보생 김천시장을 비롯하여 김천시 관계자, 시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천시민들은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지역 특산물인 자두와 포도를 전달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한, 새롭게 이웃이 된 우리 회사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김천의 금릉빛내놓 악보존회의 공연과 김천시립교향악단의 연주가 이어졌다.

박구원 사장은 “한전기술은 지역의 연구개발 및 산업 혁신은 물론 문화를 창조하고 융성시킨다는 책임감으로 상생·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모델을 경북도민 그리고 김천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임직원 2,300여명의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본격적인 김천 혁신도시 시대에 돌입했다.



원전해체기술 완성 위한 국제협력 실시

독일 E.ON사와
원전해체기술 전문가 워크숍 개최

우리 회사가 원전해체기술 완성을 위해 발빠르게 국제 기술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독일 E.ON사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경북 김천시 본사에서 '원전해체기술 워크숍'을 실시했다. E.ON사는 뷔르가센(Würgassen)원전과 스타드(Stade)원전 등의 해체 경험을 보유한 독일 최대의 전력회사다. 회사는 E.ON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해체계획 수립, 해체안전성평가, 해체폐기물 관리, 주요 인허가 이슈 등 총 24개의 주제에 대한 집중 강의와 토론을 통해 독일의 원전해체기술과 경험을 전수받음으로써 향후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회사는 지난 7월 24일 E.ON사와 원전해체 기술전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는 우리 회사 기술진뿐만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규제기관 등도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전해체기술의 공동발전과 협력을 모색하도록 했다. 이번 워크숍과 별도로 회사는 원전해체 주요 핵심기술에 대한 독일 현지 실습 교육, 원전해체현장 실습교육, 관련 핵심 해체기술자료 이전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회사는 일련의 기술전수 및 협력 과정을 통해 원전해체 전문지식, 해체 과정의 전문기술 및 경험 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자체 기술개발에도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리 1호기의 안전한 해체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전 해체기술 완성에 원전 설계기술회사로서 역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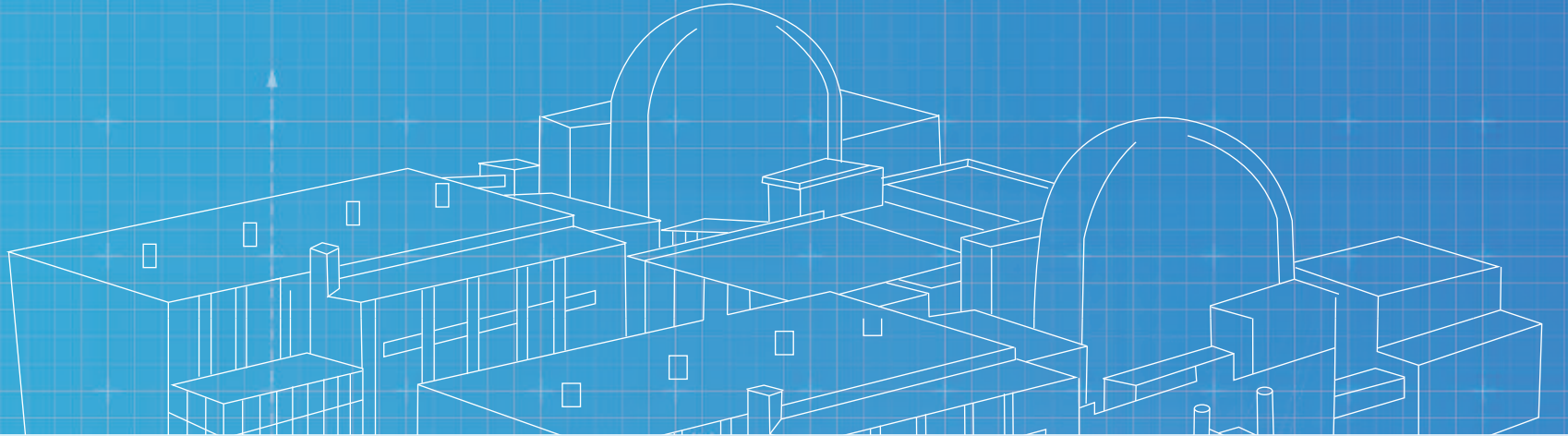
2015 우수인재 확보·지역인재 채용 잔걸음

서울대·영남대 취업박람회 참가

우리 회사는 우수인재 확보와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회사는 지난 9월 2일부터 3일까지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2015 영남대학교 취업한마당'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하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취업준비생들이 모인 현장을 직접 찾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구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어 9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15년도 서울대학교 우수인재 채용박람회'에도 참가했다. 회사는 이번 채용 박람회에 3~4인의 상시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채용정보와 취업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채용 홍보를 통해 우수인재를 확보하는데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본사가 위치한 경북지역의 우수인재 양성과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경북 및 김천지역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과 산학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발전설계 CAD인력 양성 사업' 등의 지역협력사업을 펼치는 한편, 김천시 인재양성재단에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이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 중 예정된 신입사원 채용에서는 경북지역 대학 출신 인재들에게 필기전형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내 우수인재 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Non-LOCA 최적 안전해석 방법론 개발



나는 삼겹살을 좋아한다. 아내 또한 삼겹살을 아주 좋아한다. 우리 둘 중 누군가 삼겹살 먹으러 가자는 얘기를 꺼낼라치면, 어느새 우리 둘은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삼겹살을 지글지글 굽고 있는 즐거운 상상에 빠져들곤 한다.

그러나 삼겹살을 익히는 문제에서는 개와 고양이의 신경전이 이어져 왔다. 나는 육즙이 배어있고 아들야들한 맛이 좋아 삼겹살을 살짝 익히나, 아내는 오래된 건빵만큼이나 삼겹살을 딱딱하고 바삭바삭하게 굽는다. 이는 아내가 삼겹살 속의 기생충을 상당히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돼지고기 속의 기생충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사라진지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생충 문제 때문에 시중에서 중국산 수입 삼겹살을 구경할 수 없다는 설명 등을 열심히 하였다. 그러나 모든 노력이 허사였다. 아내는 여전히 기생충으로부터 안전하기를 더 원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안전한지 보여주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계획부터 가동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동하는 것도 별도의 운영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허가들을 받으려면 원자력발전소에서 이런저런 사고가 생겨도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문서를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에 자동차가 얼마나 안전한지 설득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새로 만든 자동차 속에 교통사고를 대신할 터미인형을 태우고 자동차를 벽에다 사정없이 충돌시켜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는 직접 실험을 해보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니, 허가를 받으려는 쪽이나 허가를 내주는 쪽이나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는 자동차와 같이 사고를 가상하며 실험으로 안전한지를 증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가상해보는 방법이 만들어졌다. 컴퓨터로 가상의 사고를 만들고 그 결과를 예측해보는 것이다.

숯덩이 삼겹살과 보수적 안전해석 방법론

그런데 컴퓨터의 가상 실험은 자동차 실험처럼 100% 현실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사고에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한 컴퓨터 상의 실험은 진짜가 아니므로 실험결과를 통해 실제 사고를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규제기관은 이러한 안전해석 계산결과가 최대한 위험하게 나오도록 계산해야 한다고 뜻을 박았다. 이것이 바로 보수적 안전해석 방법론이다.

보수적 안전해석 방법론은 삼겹살을 바삭 굽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삼겹살을 얼마만큼 구워야 그 알미운 기생충이 사라질 것인지 확실하게 모른다. 그렇다면 선택은 단 하나, 이정도 구우면 기생충이 다 죽었겠지 짐작하는 것보다 아예 훨씬 더 바삭 구워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삼겹살을 굽는다면 기생충으로부터 안전한 삼겹살이 될 것이다. 보수적 안전해석 방법론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최악의 조건과 방법을 동원하여 컴퓨터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일으킨다. 컴퓨터 속의 원자력발전소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조건에서도 무사하다면 실제의 원자력발전소는 현실의 사고에 확실히 안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자동차에서 하는 실험과 비교한다면 충돌 속도는 더 빠르게, 에어백은 반만 터지게, 안전벨트는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으로 그리고 터미인형이 반만 부러져도 완전히 부러졌다고 간주하면서 실험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제까지 세계 각국이 해 왔던 안전해석 방법의 큰 물줄기가 바로 이 보수적 안전해석 방법론이다.

그러나 적당히 익힌 삼겹살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미 짐작하였겠지만 이 보수적 안전해석 방법론은 문제가 있다. 삼겹살 육즙의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삼겹살을 매번 숯덩이로 만들어야 한다면, 슬프게도 한 근에 만원이 넘는 돈을 번번이 들여도 맛나는 삼겹살을 먹기는 힘들다. 이렇게 똑같이 딱딱한 삼겹살이 도대체 진정한 삼겹살인가 하는 불만만 가득할 뿐이다.

맛있는 삼겹살과 최적 안전해석 방법론

그렇다면 삼겹살의 진정한 맛을 아내에게 선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득해야 할 것인가? 이만한 불로 이 정도 구워도 삼겹살 속 기생충의 99.9%는 확률적으로 죽을 것이니 제발 안심하라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최적 안전해석 방법론은 원자력발전소가 확률적으로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론이다.

최악의 조건들과 방법으로 사고를 내는 컴퓨터 가상 실험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런저런 최악의 조건들로 둘러싸인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난다면 실제의 상황도 가상의 컴퓨터 실험처럼 움직일 것인가? 즉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많은 실험과 연구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보수적 해석 방법론 말고도 최적 안전해석 방법론으로 해석하기를 권고하는 추세다. 유럽에 우리 원전 기술을 수출하려면 최적의 안전해석 방법론이 필요한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최적 안전해석 방법론의 첫 번째

장점이다. 두 번째로 최악의 조건과 방법에 대비하기 위한 설비비를 절감할 수 있다. 최악의 조건과 방법으로 컴퓨터 실험을 하면 그 결과도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수적인 결과에 대비하는 설비들의 도입 및 설치로 막대한 설비 예산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적 안전해석 방법론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설비예산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최적의 예산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건설할 수 있다. 같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더 맛있게 삼겹살을 먹을 수 있듯이

Non-LOCA 최적 안전해석 방법론 개발

원자력발전소는 항상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차가운 물로 계속 식혀주어야 한다. 만약 이 물이 빠져나가는 사고가 생긴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바로 원자로냉각재상실사고(LOCA : Loss of Coolant Accident)로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가 벽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것에 견줄만한 사고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는 이러한 LOCA 사고 외에도 여러 사고가 있는데 이들을 전부 Non-LOCA 사고라고 부른다. 즉, Non-LOCA 사고는 원자로를 식히는 물이 빠져나가는 사고를 제외한 사고들인 것이다.

Non-LOCA 사고들을 실제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Non-LOCA 최적 안전해석 방법론을 어설프게나마 개발하였다. Non-LOCA 사고들의 특성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론의 구조설계와 그동안 세계적으로도 최적 해석 방법론에서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핵적 특성인자에 대한 적용방법을 명확히 정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확률적인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무 적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 노력하였다.

원자력발전소에 Non-LOCA 사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확률통계적으로 안전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컴퓨터 실험 방법을 만든 셈이다. 아직도 아내는 꼭 기생충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바삭 구운 삼겹살이 더 맛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삼겹살을 바삭 구워서 먹는다. 삼겹살 최적 안전해석 방법론으로 아내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셈이니, 대신에 차라리 그보다 더 쉬운지도 모르는 유럽시장을 Non-LOCA 최적 안전해석 방법론으로 설득해야 할 것 같다. E&C



호박벌의 힘겨운 비행을 보셨는지요.
뚱뚱한 몸통에 비해 날개가 유난히 얇고 작아
절대 날 수 없는 조건을 가졌다 합니다.

작은 날개 파닥이는 생존의 몸짓.
자신이 날 수 없는 신체구조를 가졌다는 것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거라네요.
오로지 꿀을 모아야겠다는 열망과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날아야 한다는 생각뿐.

명색이 벌인데 남들 다 날아다니는데
나라고 못날 것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루에 200여 킬로를 날고
초당 200여회의 날갯짓을 한다고 하니
그 집념과 부지런함이 경이롭습니다.
꽃에 앉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온종일 파르르,
연속으로 떨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비가 오는데도 큼지막한 호박벌이
수세미꽃 속에 얼굴을 묻고 있습니다.
꿀에 취하고 꽃가루에 취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호박벌이라고 해서
호박꽃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네요.
어째 지조가 좀 없어 보이지 않나요.
수세미꽃도 좋아라, 오이꽃도 좋아라,
노란색 꽃이면 다 좋아 하는 것 같아 알미워집니다.

호박벌은 호박꽃만 좋아하고
내 남편, 내 아내는 나만 좋아하고,
발칙한 상상을 하며 혼자 웃습니다.

신입(인턴)사원 교육을 마치며

또 다른 세상의 문을 열다



최종면접에 응시하기 위해 한국전력기술로 향하던 그 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앞으로 진취적 기상으로 인생을 함께 개척해 나갈 회사가 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정문을 통과하던 면접당일의 긴장감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진다. 최종합격을 확인하고 총주의 건설경영연수원에 입소하던 날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새로운 경험의 시작

1주차 교육의 시작은 앞으로 함께하게 될 동기들과의 어색함을 떨치고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팀별 문화 활동이었다.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내가 직접 준비한 자료를 바탕

으로 발표를 해야 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90여명의 동기들 앞에서 발표하는 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실습)한 후, 컨설팅 강사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은 신선한 경험이었다.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은 청중을 분석하는 능력과 스피치 스킬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아카펠라그룹 다이아(DIA)의 공연과 함께 아카펠라를 직접 배워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된 문화 활동은 동기들 서로 간의 어색함을 깨고 한마음 한뜻으로 인화하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비록 스스로를 음치에 몸치라고 생각하지만 조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기 위해 조율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했다. 우리 39기 동기들 모두는 아카펠라 합창을 통해서 기막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회사 알아보기

2주차 교육은 박구원 사장과 임원진이 연수원을 방문하여 신입(인턴)사원들에게 덕담을 해주는 시간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교재를 기초로 하여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또한 각 본부의 전무님들이 방문하여 본부별 소개와 함께 신입사원의 자세와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셨다. 그리고 각 부서장님을 비롯하여 팀장 및 담당자께서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준비된 교육내용에 대한 강의가 끝난 뒤에는 우리 회사에 대한 궁금한 내용들을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풀어 주었다.

2주차 교육부터는 본격적으로 팀 과제 준비를 시작했다. 각 조별로 정한 발표주제에 대해서 자료수집 및 조사를 실시하고 늦은 밤 시간까지 모여 집성한 수집 자료를 토대로 팀 과제발표 자료를 엮었다. 팀 과제발표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6명의 조원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통해서 상호 신뢰가 깊어져 팀의 내적 결속을 가속화시켰다. 또한 개인적으로 몸소 체험한 팀원들과의 다양한 경험은 내적 잠재적 역량을 키울 수 있었으며 일체감과 소속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3주차 교육은 그 동안의 피로와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와 함께 클래식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멀게만 느껴지던 피아노 연주곡과 클래식에 대하여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활력소와 같은 시간이었다.

회사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에서 기획 능력을 기르고, 깔끔한 문서 작성을 위한 팁을 배울 수 있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세심한 부분까지 피드백을 받으며 업무역량 강화와 목표달성을 위한 협업 등 실무의 기초를 닦았다.

3주차 교육의 하이라이트는 팀 과제 발표였다. 3주간의 합숙기간 동안 조원들이 서로 힘을 모아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하고 그것을 다른 동기들과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들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밤잠도 잊은 채, 서로를 격려하며 노력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비록 조별로 평가를 받는 자리였지만 39기 동기들의 노력과 용기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싶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한국전력기술!

3주간의 연수원 생활을 마치고, 약 3개월간의 OJT 교육을 시작했다. 사무직의 경우 개인적으로 배치 받은 부서뿐만 아니라 조별로 타 부서를 순회하면서 업무의 기초를 쌓았다. 각 부서장과 팀장 그리고 여러 선배님들의 깊은 관심과 가르침 덕분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흐름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었다. 회사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직장입문교육과 직무실습교육(OJT)을 거치면서 앞으로의 회사 생활에 안전한 길잡이가 될 내용들을 많이, 쉽게 습득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배울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그 원리를 깨우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

지금부터는 한국전력기술이라는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고 당당히 들어가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회사 생활에 임할 것을 다짐해 본다. E&C



신입(인턴)사원 교육을 마치며

가난한 교육과 좋은 추억을 쌓는 것은 OK다 맞지...?

한국전력기술 신입(인턴)사원 최종 합격의 소식을 접하게 되자 기쁨과 동시에 두 눈에서 눈물이 샘솟는 듯하였다. 그리고 3주간 합숙 연수를 실시한다는 것이 마음을 무척 설레게 했다. 어떤 교육을 받게 될까?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까? 상상의 나래를 한껏 펼치며 가슴 벅찬 감동을 받았다. 인턴(신입) 사원 간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 등을 인정하는 1주차 교육의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하면서 어색했던 동기들과의 친밀도 정도가 더욱 깊어 감을 느꼈다. 또 한 팀별 야카펠라 합창을 통해서 개인과 팀이 아름다운 화음을 맞추고 멋진 공연도 하면서 새삼 동기애를 느꼈다.

열심히 공부하자!

교육 2주차에는 박구원 사장을 비롯하여 경영진과 부서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다. 우리 회사의 역사와 각 본부 및 부서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회사가 신입사원에게 바라는 인재상은 무엇인지 등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 이외에도 엔지니어링 일반 및 사업관리, 원자력/플랜트 배치일반 등 정말 다양하고 값진 교육이었다. ‘열심히 공부하며 성실하게 일하자’라는 사훈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오래 남아 회사에서 생활을 할 때마다 떠오르곤 한다.

성실히 배우자!

충주 건설경영연구소원에서 3주간의 직장입문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팀 과제 발표였다. 주제 선정부터 발표에 이르기까지 회사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 우리 조가 선정한 주제는 방폐장이었다. 원자력을 전공한 사람도 없었고 다른 조에 비해 사무직 인턴(신입)사원이 더 많았지만 엔지니어링 회사에 걸맞게 방폐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감한 도전을 했다.

선배 사원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했던 전문 지식을 보완해 가면서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조원 모두가 매진했다. 팀 과제발표는 내용뿐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구성과 발표 능력 또한 중요했다. 권위 있는 전문 강사의 수업을 받으며 프레젠테이션 제작, 디자인,

발표 방법 등을 익혔으며 마이크를 잡는 손, 청중을 바라보는 방향 등 세세한 것까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 한눈을 팔 틈이 없었다. 밤을 새서 함께 준비한 과제를 발표하는 조장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마치 가족과 같이 모여 과제를 준비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간직하게 해준 조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뿐이다.

합숙 연수 마지막 날에는 회사 신문을 제작하고 조에서 한 명씩 나와 자신의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주눅이 들었지만 동기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용기를 내어 소감을 발표했다. 연단에서 동기들을 바라보니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실감이 났고, 이제는 지금처럼 같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아쉬움과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길다만 길고 짧다면 짧은 3주 동안 함께한 동기들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다. 동기들과의 추억을 바탕으로 앞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잠시 정체되어 있을 때에는 오늘을 생각하며 이겨내겠다고 생각했다.



실천하는 한기인이 되자!

부서 배치를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처음 접하는 분위기에 어리둥절했지만 선배님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어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출근 후, 한분 한분께 인사를 드려보니 우리 회사는 정말 따뜻하고 정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국전력기술의 인턴(신입)사원이라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었고 자랑스러웠다. 플랜트사업관리실의 설계 BG에서 오랜 시간 동안 PA 업무를 하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나도 유능한 PA가 되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아직은 미숙한 초보자라 배우는 단계이지만 언젠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직무실습교육(OJT) 기간 중에는 참사랑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하희의 집'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부심과 보람 때문에 마음이 뿌듯하고 기뻐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 청소를 하고 마당을 정리하는 등 어려운 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누구든 섣뉘서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앞으로 봉사할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회사의 행정 사무를 맡고 있는 각 부서를 다니며 받았던 OJT에서는 부서별 업무 분장과 협업의 필요성을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다른 부서와의 연관성이 많은 사업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다보니 OJT를 받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바쁜 업무 와중에서 열정적인 강의와 인턴(신입)사원에게 바라는 점, 갖추어야 할 자세와 능력, 마음가짐 등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가르침을 주셨던 선배님들에게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십 년, 이십 년 후의 한기를 기대하자!

5개월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 동안 값진 교육을 받았고 좋은 추억도 쌓은 신입사원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만큼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배우는 자세로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다짐해 본다. 또한 39기 동기 모두가 초심을 늘 유지하여 앞으로 십 년, 이십 년 후 한국 전력기술을 이끌어 갈 중추적인 역할과 책임을 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C



동온하청(冬溫夏淸) 밀양 얼음골



월성현장에 파견된 이후로 꼭 가보고 싶었던 곳 영남 알프스! 발전소에서도 그다지 멀지도 않고 우리나라의 명산으로 널리 알려진 천황산을 2015년도 겔처데이(Culture Day) 행사를 통해 올라 갔다. 비록 영남 알프스 7개 산의 종주는 아닐지라도 천황산과 가지산의 일부라도 명산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계획표를 작성해보니 시간과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 마른오징어에서 엑기스를 짜내듯 계획표를 다시 작성하고 지난 6월 10일 버스에서 김밥 한 줄, 보리떡 한 조각, 생수 한 병으로 허기를 달래며 영남 알프스로 출발하여 가지산의 명소 중 하나인 밀양 호박소에 도착했다.

영남의 알프스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과 청도군 운문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에 높이 1000m 이상 되는 가지산(1241m), 운문산(1188m), 천황산(1189m), 신불산(1159m), 영축산(1081m), 고현산(1034m), 간월산(1069m) 등 1000 고지를 넘는 7개의 산들이 자웅을 겨루는 것이 유럽의 알프스처럼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울창한 숲과 깊은 계곡,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나무들, 기묘한 바위들이 서로 어우러져 어디를 가나 절경을 이루고, 사시사철 모습을 바꿔가며 사람들의 발길을 유혹한다. 계곡은 운문사 위쪽인 학심이 계곡이 유순하면서 부드럽고, 상류에는 20m 높이의 학소대 폭포가 장관을 이루고 석골사의 상운암 계곡과 운문령 아래에 놓인 삼계리 계곡도 널리 알려져 있다. 여러 들머리 중에서는 표충사 쪽이 교통이 편리하고 볼거리가 많아 천황산(사자봉) 산행 시 많이 이용된다.

전체 종주에는 2박 3일 정도 걸리며 등억온천, 사자평, 밀양 남명리의 얼음굴, 대곡리 암각화, 밀양 농암대, 통도사, 석남사, 운문사, 표충사 등의 명소와 사찰 들도 곁들여 갈 수 있다. 신불산과 취서산 사이의 신불평원 60여만 평과 간월산 밑 간월재의 10만여 평, 고현산 정상 부근의 20만여 평에 역사군락지가 있어 불만만 풍광을 자아낸다. 등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석남사 뒤로 올라 배내골 울산대학교 연수원에서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표충사 매표소 뒤로 올라갈 수도 있다. 신불산과 취서산, 간월산은 경부고속도로 통도사인터체인지에서 삼성전과 뒤쪽 등산로를 따라 산행할 수 있는데 종주까지 3~4시간이 걸린다. 그 중 취서산에서 신불산을 거쳐 간월산 능선을 타는 코스가 가장 일반적이다. 취서산을 오르려면 신평에서 통도사, 극락암, 백운암, 산림초소를 거쳐 능선을 탄다.

밀양 8경 중의 하나 호박소계곡

우리는 호박소 입구에서 인원점검과 기념촬영을 하고 호박소계곡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입구에 들어서 백연사를 지나니 멀지 않는 곳에서 물 흐르는 소리와 새소리가 들려와 넉넉한 자연의 품에 파묻힐 수 있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니 하얀 화강암의 계곡이 나무들 사이로 보인다. 하얀 수염을 휘날리며 근두운을 탄 신선과 천의무봉을 입은 선녀가 내려와서 노닐던 곳인 듯싶은 것이 감탄이 절로 나온다. 비취색의 맑은 물이 흐르는 물줄기 옆으로 오랜 세월 동안 물에 씻겨져 본연의 색을 잃어버리고 하얗게 변한 넓은 화강암 바위 여기저기에 돛자리를 깔고 누워서 오수를 즐기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연인 사이인 듯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을 보며 저들의 여유로움에 부러움을 느끼며 얼마간 올라가니 10여 미터 바위를 미끄러지며 쏟아지는 폭포수 밑에 커다란 연못

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선계의 비경을 자랑하고 있다. 소의 둘레가 30m 정도 되며 시례호박소, 구연폭포, 또는 백련폭포라고도 불린다. 호박소는 수십 만년 동안 계곡물에 씻긴 백옥 같은 화강석 위로 하얀 포말을 이루며 쏟아지는 계곡물과 주변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한국의 명수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Culture Day



우리나라에서 화강암을 기반으로 하는 포트홀(Pothole) 중에서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가장 완벽한 형태를 가진 것 중 하나이며, 여기서 '호박'은 '확'(전라도 지방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서 고추나 마늘 등 양념재료, 혹은 쌀가루를 갈거나 으개는데 쓰이는 조그마한 절구로 요즘은 믹서기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원래 돌로 사용하던 것을 웅기 흙으로 만들어 구워서 사용)의 경상도 사투리인데 절구의 아가리로부터 움푹 들어간 부분을 말한다. 따라서 호박소는 포트홀의 형상을 확처럼 생긴 소(여울의 반대말로 하천의 깊은 곳)로 표현한 것이다. 호박소를 흐르는 하천의 발원지인 가지산(1240m)은 동부 경남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따라서 사시 사철 수량이 풍부하고, 화강암 절리와 폭포, 맑은 물과 주변 식생 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영화 '방자전'과 오락프로그램 1박 2일의 촬영지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 호박소계곡의 탐방은 1시간이 채 못되어 끝나 아쉬움이 남았지만 다음 일정인 천황산에 오르기 위해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의 하부 승강장으로 이동하였다. 지룡산 기슭에는 단풍 등 경내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운문사가 있다.

얼음골 추억

천황산 북쪽 중턱의 600~750m 고지에는 얼음골이 있다. 천연기념물 24호로 지정된 얼음골은 겨울에는 얼음이 얼지 않고 여름에는 어는 신비한 골짜기로 그 앞에 서면 서늘하다 못해 오싹하다.

더위가 시작되는 3월 중순부터 바위틈에서 냉기가 뿜어져 나와 얼음이 얼기 시작하며, 삼복더위 때도 얼음이 얼었다가 처서가 지나야 녹는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계곡물이 얼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공기가 나오는 신비로운 곳이다. 우리나라 현존의 최장거리 왕복식 얼음골케이블카는 선로 길이만 1.8km에 달하고, 탑승인원이 50명으로 천황산 사자봉(1189m)까지 올라갈 수 있다. 소요시간은 10분 정도이지만 관광객이 많은 주말에는 2~3시간은 기다려야 탈수 있다고 한다. 하부승강장에 도착하여 다음 운행시간을 보니 다행히 10분만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남은 시간에 승강장의 옥상에 마련된 전망대에서 천황산을 올려다 보니 까마득하다. 걸어서 올라가면 반나절은 족히 걸릴 것 같다.

하늘사랑길은 상부승강장에서 시작하여 전망대까지의 길로 완만한 경사에 데크로 조성되어 있어 부담 없이 편하게 주변의 산을 둘러보며 마음의 여유와 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전망대에서 몇 컷의 사진을 촬영하고 고개를 넘어서니 약간의 내리막 오솔길이 이어지고 곧이어 탁 트인 넓은 평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오늘의 최종 목적지인 갈대밭에 자리잡고 있는 샘물상회의 지붕이 수풀너머로 조그맣게 보인다. 허술한 점심으로 기진맥진



한 직원들이 아우성이다. 일단 막걸리와 두부김치로 허기를 달래고 추가로 부추전을 주문하니 방아잎을 넣은 커다란 부추전이 나온다. 입안에 방아잎 특유의 향기가 진하게 퍼진다.

샘물상회는 70대 중반의 노부부가 개 한마리와 함께 막걸리, 파전, 라면 등을 파는 간이음식점으로 지금은 음식점 주변을 제외하고 잡초만 무성하지만 예전에는 목장 터로 그 면적이 4만여평에 달했다고 한다. 이제는 음식점만 운영하기에도 힘이 들어 이 가게터를 팔려고 80억에 내놓았다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전혀 없다.

뒤풀이

일반적으로 관광지의 주메뉴가 오리 또는 닭백숙인데, 얼음골 까투리농원은 일반메뉴 외에 추가로 흑염소와 꿩 요리가 있다. 모처럼만의 여행이니 몸보신도 할 겸 보양 음식을 먹고자 염소를 주문하고 보니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으로 취소했다. 염소 대신 꿩이라고 꿩도리탕, 오리불고기와 변화무쌍한 월성현장을 안주 삼아 술잔을 부딪혔다. 금년에 월성현장에는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올 1월에는 계축의 조희구 부장이 박종선 과장으로 바뀌고, 6월에는 월성의 터줏대감인 이창열 부장과 신월성 2호기 PVT를 끝낸 양경모 부장이 복귀한다.

6월에는 남기현 부장이 정년이시고 7월에는 전기의 정찬모 과장, 행정의 서태열 부장이 그리고 8월에는 기계의 지민곤 차장이 본사로 복귀한다. 모든 인원이 단기간에 한꺼번에 바뀌어 월성현장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지만 그 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월성현장만의 전통성을 새로 오시는 후임자 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싶다. 새로 오신 분들과 새로운 문화가 더해진다면 꿩도리탕 보다 더 담백하고 따뜻한 월성현장으로 거듭나게 될 거라고 월성현장을 사랑하는 모든 직원들이 기원하며 모두 함께 술잔을 높이 들어 소리높이 외쳐 본다.

월성현장 파이팅!!! E&C



한빛현장사무소의 쉼표 여행

한빛현장사무소는 2015년도 상반기 쉼터데이(Culture Day) 행사를 지난 6월 24일 실시하였다.

그 동안 줄곧 족구경기를 실시하였는데 이번 행사는 김규호 소장님의 제안으로 선운산 산행으로 결정하였다.

발전소건설 시에는 영광 및 홍농 사택이 있어 직원들과 함께 자주 선운산을 찾아갔지만 지금은 현장근무 직원 대부분이 광주에 흩어져 생활하다 보니 몇몇 분들은 못 가본지 거의 10년이 넘었다고 한다. 선운산 산행 코스는 소리재 출발점-천상봉-낙조대-용문골-도솔암-마애불상-장사송-진흥굴-선운사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소리재 출발점에서 천상봉 구간만 약 30분 정도 급경사를 오르면 그 이후는 능선과 내리막길이라 경치를 구경하며 직원들 상호간에 즐겁게 대화를 하며 산행을 할 수 있다. 일기예보에서 남부지방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여 아침부터 하늘만 바라보며 제발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기를 빌며 소리재로 출발하였다.

고창 선운사

소리재 출발점을 기점으로 천상봉을 향해 가파른 길을 올라가다 보니 시작부터 험난하여 한두 명씩 뒤로 처지기 시작하였고 툭툭 제리로 불리는 김성태 부장님과 황정돈 차장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웃음을 안겨준다. 소장님은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사색을 즐기고 노경훈 부장님은 산행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열심히 등산스틱을 움직인다. 정성환 부장님은 빨리 정상주를 한잔해야 한다고 하며 올라가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 차장님들은 '건강에 좋은 운동은 등산이 최고!'라며 뒤편이 장소로 Go! Go! 하자며 거의 날다람쥐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정은진 대리님과 운동과 낚시를 좋아하는 김주희 사원은 웬만한 남자들 보다 산을 더 잘 탄다. 비는 오지 않고 구름만 잔뜩 낀 하늘에 감사하며 어느덧 천상봉에 올라 절벽 아래에 펼쳐진 경치를 보니 높지 않은 산이지만 산세가 너무 아름답다. 구름이 잔뜩 끼지만 앞다툼이 먼 저 멀리 서해바다의 멋진 경관도 볼 수 있었을 테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정상에 올랐으니 이 고장의 특산물



인 북분자술과 영광의 대마막 걸리로 어우러진 정상주를 한잔 기울이고 하산 길에 올랐다. 울창한 나무 숲을 지나 커다란 바위 사이의 길을 걸으니 용문골 계곡이 심상치 않게 보인다. 이 곳이 MBC 드라마 대장금의 장금어머니 돌무덤이 있던 용문골이다. 선운산의 경관이 멋있어 드라마와 영화촬영이 많다고 하던데 이날도 가을부터 시작되는 '육룡이 나르샤'란 SBS 사극 촬영이 있어 한참 동안 구경을 했다.

얼마쯤 지나서야 소장님과 나만 남겨졌음을 알았다. 일행보다 뒤쳐져 서둘러 내려가야 했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고려시대에 조각한 것으로 보이는 도솔암 마애불상과 600살 정도로 추정되는 높이 23m, 둘레 2.95m의 장사송 그리고 신라 24대 진흥왕이 왕위를 물려주고 승려가 되어 수도에 정진하였던 진흥굴을 보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선운사에 먼저 도착한 일행과 중턱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행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주변 경관을 즐기며 힐링하려던 하산 길이 갑자기 극기훈련으로 변해 경보를 하듯 내려갔다. 오늘의 최종목적지인 선운사는 아름다운 동백 숲으로 유명하다. 우람한 느티나무와 아름드리 단풍나무가 호위하는 숲 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면 대웅전을 병풍처럼 감싸며 군락을 이룬 동백나무 숲을 볼 수 있는데 500년 수령에 높이 6m인 동백나무들은 천연기념물 제184호로 지정되어 있다. 주변에 녹차밭이 있어 비가 오는 날에는 더욱 운치가 있어 스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기회를 갖는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뒤편이 장소로 이동하였다.

뒤편이

산행을 마친 후 근처 식당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겸해 진행된 소통의 시간은 회사 또는 개인적 일들에 대한 고민과 고충을 얘기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풍류의 고창, 고창 선운사에서 이번 쉼터데이 행사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재충전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더욱 돈독해진 동료직원들의 관계와 화합의 에너지가 가득 찬 느낌이 들었다. 앞으로 더욱 활기찬 한빛현장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하반기에 있을 쉼터데이를 기대해 본다. 한빛현장 파이팅!!! E&C

Culture Day





오늘은 주말 방송 녹음이 있어 저녁을 일찌감치 먹고 라디오 방송국에 도착했다.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내리고, CD에서 김광석의 노래를 재생하고, 익숙한 의자에 앉아

방송 대본을 훑어보는 이 시간,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 온전한 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이런 일상을 꿈꿨던 때가 있었다. 보수는 없어도 좋으니

그저 이 생활이 가능한 공간에만 있어도 배가 부를 것 같던, 꿈을 먹고 살던 시절이었다.

이제는 꿈을 이야기하기엔 늦어버린 40대. 한창 '꿈'을 키워갈 10대들 속에 파묻혀 지내면서도

누가 이렇게 물어볼까봐 늘 겁이 나는 소심한 사람이 된 지 오래다.

“선생님은 꿈이 뭐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요즘 학생들은 40대 아줌마 선생에게 그런 질문 따위는 하지 않는다.

아마 40대는 꿈 꿀 나이도 못 된다는 거겠지.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이란 게,

그렇게 남루할 수는 없다는 거겠지. 그리고 나도 그런 줄만 알고 까마득히 잊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고렐라로만 라디오를 만나던 내맘 속에 학교 방송실이 비집고 들어왔다.

아주 오래 전부터 내 일상의 가까운 곳에도 방송실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은 것이다.

일 년에 고작 한두 번, 아침명상을 했던 유리창 너머 스튜디오가 어찌면 익숙한 내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하고 싶으면 그냥 해버리면 됐었던 젊은 시절의 단순함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 고 기특한 녀석이 고맙게도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었다.

그리고 2012년 5월, 노트북 바탕화면에 방송부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방송 기획안을 저장하고
학생 원고를 받아 수정하는 새로운 일상이 내게도 일어났다. 공중파는 카녕 인터넷 방송도 못 되는,
부산의 일개 학교 구석에서 고작 천여 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10분 남짓한 분량의 방송이지만,
그 새로운 일상은 첫사랑처럼 설레고 달콤했다. 명색이 문학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아줌마가 되면서부터 감성을 죽이고, 꿈을 금기어로 알고 살았다는 자책감을
방송실 작은 공간에서 조금씩 씻어낼 수 있었다. 라디오란 매체가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음악과 진솔한 사연으로 위안을 주듯, 아침부터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여고생들에게 가슴 적시는
좋은 음악과 인생의 가치들을 전하고 싶은 바람이 내 꿈과 만나 짝을 되었던 감동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첫 방송이 나가고 나흘째 되던 날, 서른을 훌쩍 넘긴 졸업생이 찾아와 늦은 나이에 이루어낸 꿈을
보여주고 갔다. 신기하게도 바로 그 무렵에 불쑥 찾아온 우연이란... 서울시의 한 지역구 방송국에
인턴PD로 입사해 무척 행복하다 했다. 일본 유학까지 마친 좋은 학벌에는 못 미치는 인턴이지만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꿈을 이뤄 더 빛나 보였던 제자, 스승보다 나은 제자 앞에서
그래도 내가 주눅 들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아침방송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다는 즐거움은 그렇게 남과는 무관한 절대적인 자존감을 만들어낸다는 걸 실감했다.

그리고 짧은 10여분의 방송 하나를 만들기 위해 몇 시간의 공부시간과 맞바꾼 방송부 학생들에게서도

그런 자부심과 행복의 눈빛을 읽어낼 수 있어 더 물기 가득한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올해 나는 또 하나의 꿈을 이룬 제자를 만났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으로 유난히 힘겨운 여고시절을 보냈던

그녀의 꿈은 '좋은 가정을 갖는 것',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었다. 그 꿈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결혼 즈음에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왕래도 한다던 그녀가 착한 남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사실은

내게 감사와 축하이었다. 그런데 그 꿈의 길목에서 그녀가 유산 이후 불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난 '좋은 부모'라는 그녀의 오랜 꿈이 그것으로 끝났다고만 여기고 잊고 지냈다. 그런데 지난 5월 스승의 날,

꽃다발을 들고 찾아온 그녀는 자신의 꿈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게 아닌가.

“선생님, 저 입양하기로 했어요.

결혼 전부터 제 아이를 낳아도 입양은 하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입양 절차 밟고 있어요.”

아, 나는 왜 이리 작은 사람인가? 바람보다 먼지보다 작아지는 기분이란 게 이런 걸까,

김수영 시인의 고백이 내 것이 되는 순간이었다. 내 꿈만 절실했지 그토록 아끼는 제자의

오랜 꿈을 그렇게 쉽게 묻고 있었다니.. 참 많이 부끄럽고 또 부끄러웠다.

지난 8월 나는, 재직 중인 학교의 어떤 교사도 써 보지 못한 추천서를 쓰는 영광을 얻었다.

평생 대입 추천서만이 전부였던 내게 그녀는 '입양추천서'라는 소중한 경험을 선물한 것이다.

그것도 너무 조심스러워하고 미안해하며, 까다로워진 국내입양 절차 때문에 처음에는

'위탁'이라는 생경한 이름의 자격으로 데려올 아이지만 그녀의 선한 눈매를 빼닮은

'기쁨'이라는 이름의 딸아이. 그 예쁜 생명을 안고 찍은 사진 속에서

그녀는 오랜 꿈을 이룬 행복감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2년 전 방송의 꿈을 이룬 제자의 빛나던 웃음이 다시 살아나듯-

세상의 무수한 별만큼 다양한 우리들의 꿈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

각박하고 버거운 현실을 붙들어 위로해 주는 별과 같은 존재가 꿈이다.

그래서 꿈이 자라는 학교는 은허수를 이룬다. 그것만으로도 교사란 직업은

축복받은 성직이다. 더욱이 한 생명을 받아들이어 가족이라는 이름을 선물하고

꿈을 열어줄 그녀라는 위대한 별-멋진 별의 탄생을 지켜볼 수 있었던 올 8월은

내게 특별한 여름이었다. 아마 그녀는 모를 것이다. 자기로 인해 옛 스승의 여름이

얼마나 충만했었가를.. 그 힘으로 후배들을 향한 내 시선에 다시 온기와 애정이

살아났다는 것을..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기쁨'의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오늘밤도 분유를 타느라 밤잠을 설칠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오랜 꿈을 이룬 것이다. E&C



한기가족 사진 콘테스트



출발점에 서다

문성빈 | 플)기계배관기술그룹

어디 있을까? 그저 봄이에게 주어진 길은 알만 했고 나아갈 뻔이다.
출발점에 서서 목적지를 보니, 보이지 않는다. 한지붕, 못다한 그 길을 따라가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할 거라는 믿음으로 고개를 넘어 목적지를 향해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간다.



야생화(노루귀)

박신동 | 원자로사업관리실

긴 겨울 찬바람을 이기고 이른봄 양지바른 곳에서 겨우살수 경 피어나는 야생화.
산골짜기 어느 능선 나뭇 사이를 뻗고서 고개를 내밀고 세상 밖으로 나온다. 추위를 이기려는 듯
몸에 솜털이 많이 나 있으며, 꽃바침은 노루의 귀를 형상화듯 모양새가 흡사하다 하여
노루귀라 붙여진 이름이다. 빛나는 솜털이 참 인상적이며 고운 자태가 더욱 아름답다.

Communication

영화 ‘인사이드 아웃’은

주인공 ‘라일리’를 통해 머릿속 세상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감정들을 의인화해서 보여줍니다.

감정 컨트롤 본부에는

잘될 거야 하는 ‘기쁨이’ 세상사가 너무 슬프다는 ‘슬픔이’

제맘대로 안 되면 화부터 내는 ‘버럭이’

과민 반응하는 ‘까칠이’ 걱정을 안고 사는 ‘소심이’

이렇게 다섯 감정이 모여 삽니다.

그들의 활동량에 따라 개개인의 심성이 만들어집니다.

라일리는 본래 밝고 낙천적인 성격이었으나

이사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실수로 ‘기쁨이’와 ‘슬픔이’가 본부를 이탈합니다.

그러자 라일리에게는 겹잡을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잃은 신뢰는 되살리기가 힘이 듭니다.

가출한 감정들이 본부로 돌아가려 하지만

저장된 수많은 기억들로 인해 가는 길은 험하고 고달픉니다.

이 영화를 보기 훨씬 이전부터

휴대전화기에 입력된 그의 이름도 ‘버럭이’입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잘 내기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화’는 단순한 감정의 배출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생각과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를 이끌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언제나 옳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습니다.

옳음은 상대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감정의 기복

우리 모두 ‘버럭이’ 대신 ‘기쁨이’가

좀더 자주 주도권을 잡았으면 합니다.

잊고 살아온 것들이 있다. 별, 초원, 지평선 같은 단어들이다.
과거에는 늘 보았거나 동경하던 것들이 어느새 기억의 저편에서 가물가물하다.
문명으로 가득 찬 도시의 밤, 그리운 것을 찾아 내몽고 시라무런 초원으로 떠나본다.

내몽고의 별

시라무런 초원과 후허하오터



몽골인들의 땅, 후허하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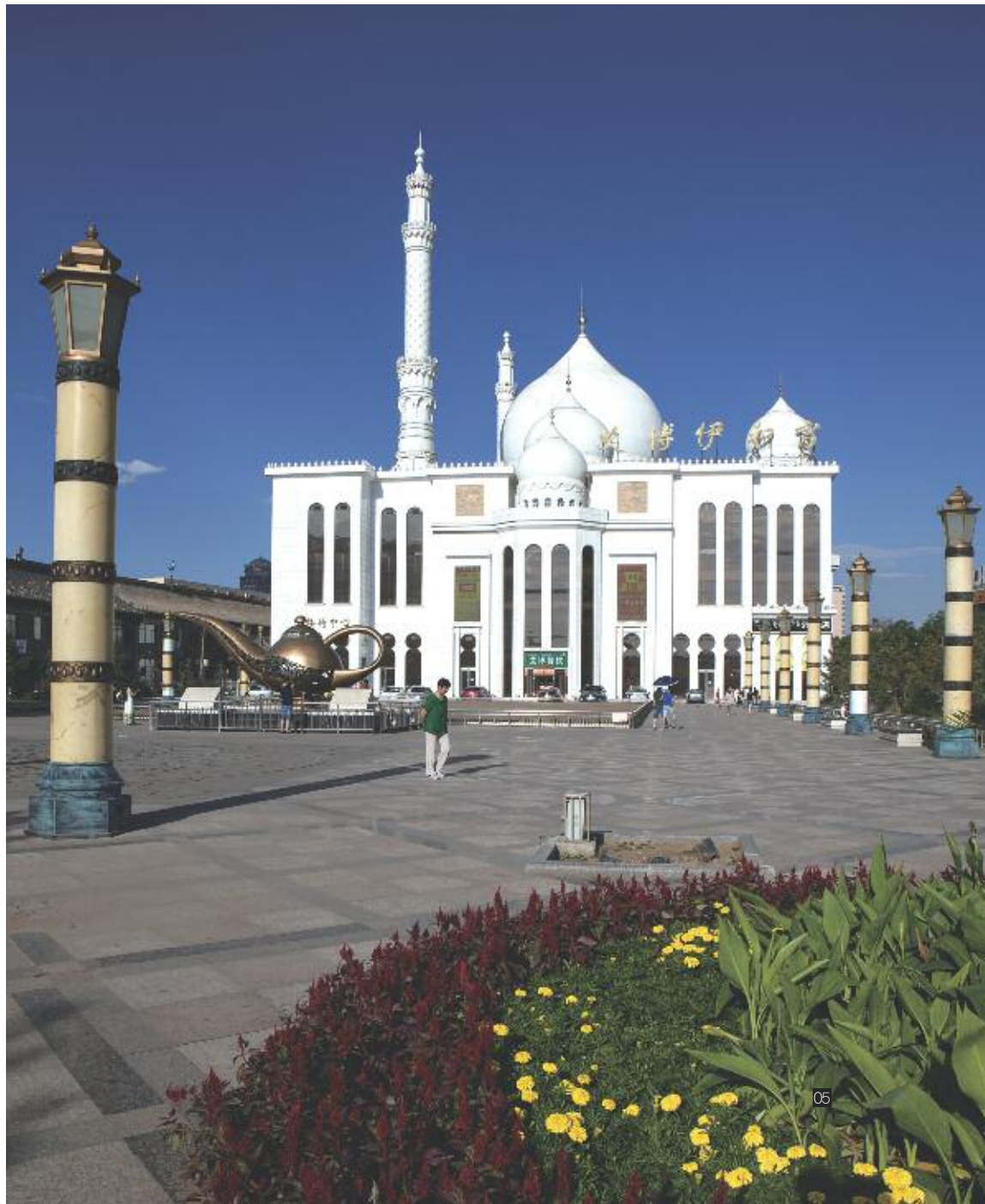
호화호특(呼和浩特), 중국 내몽고 자치구의 구도이다. 중국어로는 후허하오터, 영어로는 HO-HHOT로 표기된다. 몽골말로 '파란 성'이라는 뜻이다. 16세기에 몽골인들이 푸른 벽돌로 성벽을 쌓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면적은 17,224km²,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2,866,615명이다. 내몽고 자치구지만, 주류는 역시 한족이다. 몽골인은 10%, 한족이 87%, 회족과 조선족 등 기타 민족이 3%다. 후허하오터의 여행적기는 7월에서 8월이다. 이즈음의 초원이 가장 푸르고 날씨도 쾌적하기 때문이다. 겨울은 길고 영하 40도까지 기온이 내려간다. 여름 평균 기온은 18~25도 정도다. 후허하오터는 성도답게 대도시다. 고층 빌딩과 아파트들이 많고, 계속 지어지고 있다. 특히 교통상황은 어느 중국도시들처럼 복잡하고 교통질서는 엉망이다. 끊임없이 울려대는 경적소리, 보행자에 별 관심이 없는 운전자들, 무단횡단,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혼재.. 그러나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재미있다. 후허하오터는 청나라 시절 몽골 지배의 거점이었고, 지금도 중국에 속해 있다. 그러나 후허하오터에서 마저 소수인 몽골인들은 옛 몽고의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다. 징기스칸의 시절이다.

01 시라무런 초원의 별밤 02 후허하오터의 복잡한 거리
03 화려한 장식과 규모가 대소사의 사세를 보여준다 04
티벳불교의 사원, 대소사



대소사와 회교거리

대소사(大召寺)는 티벳 불교사원으로 1580년에 세워졌다. 명나라에 의해 몽골의 타타르 부족장인 알탄이 순의왕에 봉해지면서 후허하오터의 옛 성과 함께 이 사찰을 만들었다. 중국말로는 무량사(無量寺), 몽골말로는 이커자오라 부른다. 큰 사찰이라는 뜻이다. 알탄칸은 티벳불교에 심취해 있었다. 그런 연유로 내몽고 지역에 티벳 사찰이 꽤 들어섰다. 대소사의 규모는 궁궐만큼이나 크고 화려하다. 사찰 내에는 2.5m의 순은으로 제작된 불상이 있고, 10m나 되는 용조각도 있다. 이곳의 벽화들도 볼거리다. 티베트의 3대 달라이라마가 이곳에서 법회를 주관하며 큰 명성을 얻었다. 중국 내에서 외부 종교들은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이슬람교의 경우, 근래의 신장 위구르 사태들 때문인지 중국내에서 가장 눈총의 대상이 되는 종교다. 그러나 내몽고 지역은 실크로드의 동북방 끝자락에 위치해 문물과 문명이 오가던 곳이어선지, 아직까지 다른 도시들에 비해 압박이 덜한 듯싶었다. 회교사원과 회교도 밀집 지역인 회교거리 등이 이채롭다.



05



06



07

내몽고박물관

후허하오터 중심부에 위치한 내몽고박물관은 네 개의 섹터로 나뉘어져 있다. 몽골인들의 풍습을 볼 수 있는 민속문화재 전시실과, 내몽고 지역 역사관, 근현대전시실, 고생물관이다. 원래 1957년에 세워진 것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기념하여 현대식으로 새로 만들었다. 메인 드린 차이나다게 규모가 제법 커서 제대로 다 돌아보려면 반나절은 걸린다. 이 중에 두 곳은 꼭 봐야한다. 징기스칸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역사관과 자연사박물관인 고생물관이다. 징기스칸은 어떤 인물인가? 몽골의 작은 부족, 궁핍한 유목민의 아들로 태어나 세계사에서 전무후무한 승전기록을 남긴 위대한 몽골의 칸.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 쇠망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징기스칸과 그의 부족들이 세계를 흔들자 술탄들이 쓰러졌다. 칼리파들이 넘어졌고, 카이사르들은 왕좌에서 벌벌 떨었다." 가히 압도적이었던 징기스칸의 위세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의 몽골은 문자가 없었고, 장례마저 흔적을 남기지 않아 유형의 유산이 거의 남겨져 있지 않다. 징기스칸의 흔적을 미흡하게나마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내몽고박물관의 볼거리였다. 고생물관에는 북방의 선사시대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공룡화석과 매머드 모형이 전시되어 있어 흥미롭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관람시간은 오전 8:30~17:00 이다.



08

05 회교 거리에 있는 회교사원
06 현대식으로 새롭게 지어진
내몽고박물관 07 자연사박물관
내의 공룡화석 08 맘모스의 화
석은 모형이지만 생동감이 느
껴진다



09

내몽고 여행의 꽃, 시라무런 초원투어

시라무런 초원은 후허하오터에서 두 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초원투어는 후허하오터 여행의 꽃이다. 비록 콘크리트로 지어졌지만 몽골식 게르에서 숙박을 하고, 몽골식 음식을 먹고, 그들의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무엇보다 사방으로 지평선이 이어지는 광활한 초원, 대자연과의 만남이 특별하다. 시라무런 초원에서 관광객을 위해 운영되는 게르촌은 수백 개에 다다른다. 그러나 워낙 너른 지역이어서 시야에 방해받지 않고, 저마다의 독단적인 초원체험이 가능하다. 초원 여정의 핵심은 말타기 체험이다. 두 시간 정도 말을 타고 초원을 둘러보게 된다. 관광객들을 태운 말은 천천히 걷다가 중간중간 경보수준으로 달린다. 체험이 끝난 후에는 몽골 마부들이 시범을 보여준다. 첫날 두어 시간 체험을 하고나면, 다음날 아침 신청자에 한해 조금 더 빠른 말타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몽골 속담에 “초원은 어린이의 얼굴

09 한가로운 초원의 정경 10 오보산. 몽골식의 상황당이다 11 바람이 불고 비가 오더니 어느새 무지개가 떴다 12 시라무런 초원의 게르촌



11



10

같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날씨가 변화무쌍하다는 말이다. 맑은가 싶더니, 어느새 구름이 흘러오고, 비가 내리고, 거센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모래폭풍이 불고, 이 모두가 말을 타기 위해 기다리던 한 시간 남짓의 일이었다. 말을 타면서 잊혀지지 않을 세 가지 모습이 있다. 변화무쌍한 날씨, 광활한 대지, 몽골인 마부들의 표정이었다. 말을 달리며 웃고 떠들던 그들의 모습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겐 찾아볼 수 없는 행복감과 여유로움이 물씬 느껴졌다. 문명이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로인한 물욕과 탐욕, 스스로 물질의 삶에 복종하며 살아야하는 어찌보면 천형 같은 삶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후허하오터 여행 Tip

후허하오터의 여행 성수기인 7월과 8월에는 직항으로 전세기가 운행된다. 비시즌에는 중국의 다른 도시를 경유해서 들어가야 한다. 육로를 이용한다면 베이징에서 후허하오터까지는 약 450km, 5~6시간 정도 소요된다. 후허하오터에서 시라무런 초원은 2시간 30분 거리다. 비시즌의 초원관광은 현지 여행사를 통해 가능하다. 시라무런 초원 외에 쿠부치사막 체험도 유명하다. 후허하오터 도심을 벗어나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특히하게도 US 달러를 선호한다. 말타기 체험은 50\$ 내외, 저녁만찬에 나오는 양바베큐는 일인당 15\$ 정도다. 여행사를 통해 가면 보통 양고기 수육이 제공되는데,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안 맞는 경우가 많다. 바비큐가 그나마 먹을 만하다. 일교차가 심한 편이며, 바람이 많고 밤은 서늘하다. **E&C**



12

가야산에서 풍류를 즐기며 신선이 된 기분을 느끼다

일기분류 : 유산일기

출 전 : 유가야산기(遊伽倻山記)

시 기 : 1625년 9월 12일 ~ 14일

인 물 : 허돈, 권백임, 이남, 이회부, 임억령

장 소 : 경상남도 함천군

저 자 : 허돈(許墩)

◆ 속세를 떠나 은거한 허돈

허돈(許墩 : 1586~1632)의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덕휘(德輝), 호는 창주(滄洲)이다. 노홍(盧欽)에게 글을 배웠고, 뒤에 이흠(李屹)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1616년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 학유에 임명된 뒤 성균관 박사를 거쳐 예조정랑을 역임하였다. 그때 (인목대비) 폐모설이 나오자 인륜의 기강이 무너졌다고 크게 한탄하면서 관직에서 물러나 와림천(臥林泉)에서 부모를 봉양하며 학문에 전념하였다. 1623년(인조 1)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즉위하여 전라도사에 임명하였으나 나가지 않았다. 1627년 후금(後金)과의 강화조약이 이루어지자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였으며, 또 친구 임진부(林眞蓀)에게 준 시 300구절에서는 모두 시대를 한탄하고 나라를 걱정하였다. 그가 가야산을 유람한 1625년은 고향에서 은거하던 때이다. 허돈은 이 여행에서 세상의 일을 잊고자 한 듯 피리를 불게 한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마음껏 술을 마시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몇 번이고 신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최치원과 임억령의 자취를 보며 선현(先賢)들의 언행을 생각했다.



1625년 9월 12일, 가야산을 여행 중이던 허돈(許墩)은 숙소에서 아침밥을 서둘러 먹고 해인사로 향했다. 허돈과 동행한 이는 7~8명 정도였다. 모두 말을 타고 길을 나섰다. 송산(崇山 : 김천 지역)에 사는 어른인 이회부와 두 아들이 미리 해인사 입구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회부 어른은 허돈 일행이 가야산을 여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합류하고자 하여 여기서 만났던 것이다. 모두 함께 무릉교를 건너 홍류동으로 들어갔다.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아래에서 여러 친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 술을 마시며 즐거웠다. 다만 모임의 흥을 돋을 노래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일행인 권백임이 피리를 잘 분다는 이남(李南)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모여 앉아 술을 몇 잔씩 하고 그 흥을 이어서 칠성대에 도착했다. 오래 전에 일품 명의 호사가(好事家)들이 이곳에 와서 놀았다고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바위 구석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일행은 홍류동 계곡의 명승지들을 구경하며 기슬러 올라갔다. 광풍리, 낙화담, 분옥 폭포, 첩석대 등 유명한 풍경들은 역시 일부러 찾아와서 볼만하였다. 이곳저곳을 직접 보고 즐기며 마치 신선의 세상에 온 것 같이 노닐다 보니, 세상을 떠나 신선이 되어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해인사에 잡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회부 어른과 그의 아들 등 몇몇은 급히 말을 타고 먼저 갔다. 허돈을 포함한 네 사람은 뒤에 따라갔다. 허돈은 뒤에 떨어진 김에 여유를 즐긴 듯하다. 말을 타고 가면서 이남에게 피리를 불게하고 따라온 어린 종에게 피리 소리에 맞추어 학답하게 하였다. 술기운도 오르고 하여 기분이 좋아지고 가슴도 상쾌해지는 듯 했다. 허돈은 같이 가던 동료에게 “여기 함께 가는 이들 중에서 한 점이라도 티러운 생각이 있다면 산신령이 말고삐를 잡아 다른 곳으로 행로를 돌려버릴 것이다.”라고 하며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을 농담으로 표현했다. 일행은 모두 기분 좋게 웃으며 길을 갔다.

소나무와 회나무 사이로 금빛과 푸른빛이 어우러져 온온하게 비치고 있었다. 절의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절에서 승려가 일행을 맞이하러 나와서 인사를 하였다. 눈썹이 짙고 흰 머리를 한 늙은 승려였다. 승려의 안내를 받아 일주문(一柱門)으로 들어갔다. 일주문 위에는 임억령(林億齡)이 지은 사가 있었다. 허돈도 이 시를 익히 알고 있었다. 일주문 밖에는 돌을 깎아 물이 흐르게 하여 술잔이 그 속을 떠다니게 만든 구조물이 있었는데, 최치원이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이회부 어른과 함께 먼저 간 사람들은 종각에 올라 누워서 쉬고 있었다. 허돈은 이들을 쉬게 두지 않고 이회부 어른을 일으켜 배워 춤을 추자고 하였다. 모두 즐겁게 그날 하루를 보냈다. E&C

— 출처 : 한국국학진흥원 —

중소기업 대통령 시대, 진정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국부유출을 막겠다는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외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은 일더군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무정전전원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제조 전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대표를 만나 이런 하소연을 들은 건 지난 6월 말이다. 중소기업의 정부 조달시장 참여 지원을 위한 판로지원법이 마련되어 있는 덕분에 품질을 인정받은 중소기업 제품이 정부 조달시장 문턱을 넘어서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조달시장에서 얻은 명성을 바탕으로 사세를 확장한 중소기업인들의 사례를 적잖게 봐온 기자로서 A대표의 하소연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지인의 소개로 그를 만나게 됐는데, 그 지인은 “A대표가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호소한 편지를 보내와 읽어 보았는데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기자의 본능적인 근성 때문인지 만나기 전부터 A대표와 그 제품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다.

A대표는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대뜸 300쪽이 넘는 두꺼운 서류철 4개를 꺼내 들었다. 내용을 살펴보니 다수 공공기관을 찾아 다니며 자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한 기록들이었다. 순간 개인적인 민원 때문에 찾아온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가 펼치는 논리정연한 사연에는 국내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맹점이 총망라되어 있었다.

A대표가 기자를 찾은 사연은 이렇다. UPS는 정전 등 갑작스러운 전원공급 중단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정 시간 동안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로 전산망 운영의 필수 장비다. 비상사태 발생시에도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구비하고 있다. 전기 관련 중소기업에 다니던 A대표는 지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UPS 개발에만 300억 원을 쏟아 부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 전부와 퇴직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까지 모두 털어서 투자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 이 회사의 UPS는 올해까지 KS인증 등 국가공인 품질인증만 30개를 받았고 기술특허를 35개나 받았을 정도로 품질 측면에선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판로였다. 그것도 정부가 법적으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우선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정부 조달시장에서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UPS 시장은 5000억 원(업체 추산) 규모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시장은 안타깝게도 다국적 기업인 에머슨과 슈나이더일렉트릭, 제너럴일렉트릭 3개사가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과점하고 있다. 이들 다국적 기업이 점점 시장을 확대해 나가기도 용이한 환경이다. 수요처들은 UPS만 단독으로 발주하지 않고,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통합 구매를 한다. 업무의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기존에 사용해왔던 제품에 손이 더 갈 수밖에 없을 터. 이렇게 되면 후발주자인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이 기회를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앞으로 국내 UPS 시장은 해외업체들이 장악할 판이다. 휴대전화 제조 강국이지만 매년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의 퀄컴사에게 막대한 규모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다국적 기업들의 급속한 UPS 시장 잠식에 개선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국산 UPS 육성을 위해 용량 500Kva(킬로볼트 암페어·1000와트) 이하인 UPS를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 중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제품’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전산망 구축 및 유지보수가 예정되어 있던 공공기관 4곳은 UPS를 직접 구매하는 대신 통합 발주를 선택했다. 또 500Kva 이하 용량의 제품을 연결해 대용량의 전원장치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500kva 이상의 UPS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A대표의 제품을 외면했다고 한다. A대표가 자사 제품의 강매를 시도하는 악덕 기업인인지 의심이 갈 법도 하다. 그러나 A대표는 지난 6월 외국산 UPS와 동일한 규격을 갖춘 것을 입찰참가 자격에 명시해 둔 정부대전청사관리소의 입찰공고에 대해 끈질기게 민원을 제기, 대전지방조달청으로부터 기존 입찰 취소 및 재 공고 조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후 7월 24일 전국 11개 지방조달청은 공공기관 1,000곳을 대상으로 국산 UPS 구매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에 이른다. 조달청은 공문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용량 500Kva(킬로볼트 암페어) 이하 UPS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제품을 구매해야 하므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또 “용량 500kva를 초과하는 UPS 구매 시 국내 기술개발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특별히 일반경쟁으로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산 기술개발 제품이 입찰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후,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정책들이 나왔고 경제정책의 중심에 중소기업들은 빠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외교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주역이 중소·중견기업일 정도로 우리는 중소기업 대통령 시대에 살고 있다.

중소기업 대통령 시대의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건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법 규정과 현상이 다르게 움직여 중소기업인들이 골탕 먹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라. 둘째 규제나 지원정책이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최대한 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늘 기업인의 입장에서 날을 세워주시라. 기업 친화적으로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효과적인 중소기업 육성책이 아닐까. **E&C**

미스터리 불빛과 지진 예지

2014년 1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Nature)’의 과학연구 동향 소개 코너에는 최근 미국지진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한 논문이 소개되었다. 이 논문은 지진광(Earthquake light)이라고 불리는, 지진 발생 전후에 대기 중에서 관측되는 발광현상의 발생 원리와 관측 사례를 보여주는 연구 논문으로 지진 예지에 지진광의 응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진광의 발생은 지각에 작용하는 응력(應力, 외력이 재료에 작용할 때 그 내부에 생기는 저항력)에 대한 매질 구성 광물의 반응 결과로 설명**되고 있다. 지진 발생 직전에 지각판 경계부로부터 전달된 응력이 단층면 중심으로 축적되고, 이 축적된 응력은 단층면 내에 존재하는 화성암과 변성암의 음이온 운동을 유발한다. 단층이 움직이면서 광물로부터 분리된 전자가 지상으로 전달되어, 대기권 내의 전하에 영향을 미쳐 지진광 현상을 유도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지진광 현상은 판 내부 환경의 열곡 구조나 규모 5.0 이상의 지진에서 특히 잘 관측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8만 8천여명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2008년 5월 12일 규모 8.0 중국 쓰촨성 지진, 23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09년 4월 9일 규모 6.3 이탈리아 라퀼라 지진 발생 전에 목격된 바 있다. 이러한 지진광 목격으로 지진 발생 전에 대피하여, 인명 피해를 줄인 사례들도 여럿 있다. 한 번의 지진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성공적인 지진 예지는 인류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진광의 관측과 이론에도 불구하고 지진광 현상을 활용한 지진 예지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다. 이는 지진광 현상이 몇가지 점에서 지진 유발 단층 운동의 물리적 특성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지진광 형성 이론에 따르면, 지진광은 단층 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강력하고, 짧은 시간동안 관측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나, 실제 관측에서는 지진 발생 수일 혹은 수주일 전부터 관측이 된다. 또한, 단층대와 수백km 떨어진 먼 거리에서도 지진광 현상이 관측되기도 한다. 전자 이탈 유발을 위해 필요한 특정 지역 응력 집중 현상도 실제 단층대에서 관

측되는 물리적 특성과 차이가 있다. 응력은 특정 매질 내에 갇혀 있지 않고, 인접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전달되면서 매질 전체적으로 응력양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또한 2004년 수마트라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규모 9.0이 넘어서는 강력한 대지진에서 지진광이 관측되지 않고, 지진을 동반하지 않은 지진광이 목격되는 등, 지진예지 현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이렇듯 지진 전조 현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상의 일관성 있는 반복성과 재현성은 필수적이다. 지진광 외에도 라돈 가스(radon gas) 농도 증가, 지하수 수질 변화와 동물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같은 각종 2차 매체를 통한 지진 예지 노력이 있었다. 라돈 가스는 암석 내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에 의해 생성되는 가스이다. 단층대 암석이 파쇄되면서 암석 내에 존재하던 라돈 가스가 지하수에 용해돼 매질 내에 그 농도가 증가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라돈 가스 역시 지진광과 마찬가지로 농도 증가를 반드시 지진 발생과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없다. 또한, 동물의 비정상 행동의 원인을 지진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원인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지진 예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는 것은 지진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움을 반증한다. 최근 들어 지진 발생과 관련한 물리적 현상에 부합하는 보다 현실적인 관측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진 발생 전에 단층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매질의 변형을 GPS, 응력계, 변형률계, 경사계를 활용하여 측정하거나, 단층대 파쇄 진행에 따라 전기비저항(전류의 흐름에 저항하는 물질의 특성)이 감소하는 현상을 응용한 전기전도도 측정 방법이 있다. 하지만 단층대를 직접 모니터링 하는 방법은 관측 시스템이 설치된 단층대만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접근이 불가능한 해상지역에서는 한계가 있다. 또한 매질의 변형과 응력 누적이 오랜 기간에 걸쳐 매우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 짧은 기간의 모니터링으로 그 변화추이를 쉽게 판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진 발생에 동반되는 다양한 특징으로 인해, 한 가지의 특정한 방법으로 효율적인 지진을 예측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효율적인 지진 예지를 위해 지진의 다양한 특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진 특성은 주기성이다. 지진 발생의 주 원동력이 되는 응력은 지구 표면을 구성하는 판들의 상대적 움직임에서 기인한다. 지각판의 운동은 수만 년에 걸쳐 서

서히 변화하므로, 지각판의 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양은 매년 거의 일정하다. 이때 땅이 건디는 응력 한계치가 일정하다면, 지진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발생함을 예상 할 수 있다. 이러한 주기적인 지진 발생 현상은 지진의 보편적인 특징이다.

22만여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2010년 규모 7.0의 아이티 지진, 2만여명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2011년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 등 많은 대형 지진들은 수백년에서 수천년에 이르는 재현 주기를 가진 지진들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일본 동경 연안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8.0 내외의 큰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데, 이곳에 150~200년 주기의 지진 발생이 임박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진의 발생 주기는 매질 특성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미국 서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산안드레아스 단층(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변환단층)이 지나 는 파크필드(Parkfield) 지역에서는, 규모 5.5~5.6 지진이 1857년부터 1966년까지 약 22년 주기로 6차례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지진이 1988~1993년 사이에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다리던 지진은 예측한 시기보다 무려 10여년이나 늦은 2004년에 발생하였다. 주기를 벗어난 지진 발생에 대해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으며, 지진 주기성을 지진 예지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기를 벗어나는 지진 발발에도 불구하고, 과거 지진의 발생 기록은 지진 예지에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과거에 발생한 지진의 규모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규모를 가늠케 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까닭으로 수백년 전 과거 지진 기록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기록물에 많은 지진 피해 기록이 남아 있으며, 이 자료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지진의 규모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진의 주기성과 더불어, 대형 지진 발생 전에 단층대에 보이는 지진 발생 빈도 변화 역시 중요한 전조 현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응력이 누적됨에 따라 매질 변형이 이루어지게 되고, 매질이 가지는 탄성계수가 임계치에 다다르게 되면, 더 이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질 내에 응력 누적이 가속화 된다. 이때 탄성계수가 임계치에 다다른 매질에는 지진 발생 빈도가 급감하는 현상이 관측된다. 이런 현상은 대형 지진 발생 수년 혹은 수십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관측되며, 유사한 관측이 동일본 대지진 지역에서 관측된 바 있다. 또 대형 지진 발생 직전 수일에서 수개월 전부터는 지진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관측된다. 이러한 지진을 전진(foreshock)이라 일컫는다. 탄성 임계치에 다다른 매질이 더 이상 응력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쪼개지게 되면서 작은 지진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라퀼라 지진에서도 본진 발생 수개월 전부터 작은 지진들이 급격히 증가한 기록이 있으며, 1975년 중국 하이청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지진 발생 전에도 규모 4.8의 지진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지진들이 수개월 동안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급격히 증가한 지진 현상을 지진 전조 현상으로 파악하고 인구 100만의 하이청 주민을 도시에서 소개(疏開, 공습이나 화재 따위에 대비하여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주민이나 시설물을 분산함)시켜, 도시가 크게 파괴되는 큰 재해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2천여명으로 크게 줄였다. 이 하이청 지진 예보 사례는 지금껏 인류가 지진 예보를 성공한 최초의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듬해 중국 탕산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지진 예보에는 실패함으로써 지진 예지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공식 기록에 의하면 탕산 지진에 의해 25만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인명피해는 계기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00년 이후로 인류가 겪은 가장 큰 지진 재해로 남아 있다.

지진 예측과 예지 분야는 아직까지 인류가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많은 지진 학자들은 이 거대 자연재해로부터 인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진의 발생 메커니즘의 신비가 조금씩 풀리고 있으며, 지진 예보에 성공할 날이 머지않았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C**

Culture

Exhibition

안토니 가우디展

기 간 : ~ 11월 1일 장 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바로셀로나를 꿈꾸다. 안토니 가우디展’은 예술사에 있어 가장 풍부하고 강한 개성을 가진 안토니 가우디라는 인물과 그의 작품, 그가 우리에게 남긴 문화유산을 향해 떠나는 뜻깊은 여정이다. 가우디의 개인적인 기록들과 더불어 한 예술가가 작업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는 미발표 작품들을 본 전시에서 최초로 선보이며, 그가 어떻게 20세기 건축과 예술의 전무후무한 혁신의 아이콘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http://antonigaudi.co.kr>

Musical

배달왔습니다 - 대구

기 간 : ~ 10월 11일

장 소 : 대구 문화예술전용극장CT

색다른 웃음폭탄! 향기로운 사랑의 추억!
열정만 가득한 가수 준비생 민경은 그토록 원하던 첫 무대에 서기엔 2% 부족하지만 하다. 모처럼 쉬는 휴일에 떠난 고향으로의 여행, 20년만에 찾은 그 곳은 추억 속 그대로였다. 지친 마음으로 모든게 절망적이었던 민경은 그곳에서 우체부 아저씨를 만나며 자신의 본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고, 잃어버리고 살았던 자신의 꿈과 열정, 그리고 사랑을 조금씩 발견하게 된다.

<http://cafe.daum.net/artCT>



Book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평범한 대학원생 사이토 다카시를 유명 저자이자 메이지대 교수로 만든 ‘혼자 있는 시간의 힘’ 불과 2~3년 전만 해도 혼자 밥을 먹는 풍경은 낯선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혼자 밥 먹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혼밥(혼자 먹는 밥)’이라는 단어가 생기기도 했다. 혼밥이 꺼려지는 가장 큰 이유를 ‘남의 시선’으로 꼽았다. 바빠서, 편해서, 혼자 있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혼자서 무언가를 하기 두려운 사람,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 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의 저자 사이토 다카시도 그랬다. 사이토 다카시는 현재 메이지대 인기 교수이자 유명 저자이지만 사실 서른 살이 넘도록 변변한 직업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재수 생활을 시작한 열여덟 살부터 첫 직장을 얻은 서른두 살까지 철저히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묵묵히 내공을 쌓았다. 성과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도 않았지만 자신을 믿으며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쌓아나갔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사이토 다카시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통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시행착오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사이토 다카시 저/장은주 역 | 위즈덤하우스



Movie

사도

“잘하자. 자식이 잘 해야 애비가 산대!”

재위기간 내내 왕위계승 정통성 논란에 시달린 영조는 학문과 예법에 있어 완벽한 왕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다. 뒤늦게 얻은 귀한 아들 세자만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길 바랐지만 기대와 달리 어긋나는 세자에게 실망하게 된다.

“언제부터 나를 세자로 생각하고, 또 자식으로 생각했소!”

어린 시절 남다른 총명함으로 아버지 영조의 기쁨이 된 아들, 아버지와 달리 예술과 무예에 뛰어나고 자유분방한 기질을 지닌 사도는 영조의 바람대로 완벽한 세자가 되고 싶었지만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고 다그치기만 하는 아버지를 점점 원망하게 된다.

왕과 세자로 만나 아버지와 아들의 연을 잊지 못한 운명,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가족사가 시작된다.

상영중



KEPCO E&C News



● 오산열병합발전소 기동용 보일러 점화

명품 오산열병합발전소 건설현황 점검 및 기동용 보일러 점화 기념행사가 지난 8월 26일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현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박구원 사장을 비롯하여 SPC사인 디에스파워(주) 장영진 사장과 공사관계자의 대표 등이 참석하여 건설현황 점검 및 기동용 보일러 점화 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양사 경영진은 그 동안 최선을 다하여 종합 시운전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상업운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관계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안전관리와 철저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명품 오산열병합발전소는 전력수요의 중심지인 수도권에 건설됨으로써 안정적 전력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임 기초지방자치단체장(G7) 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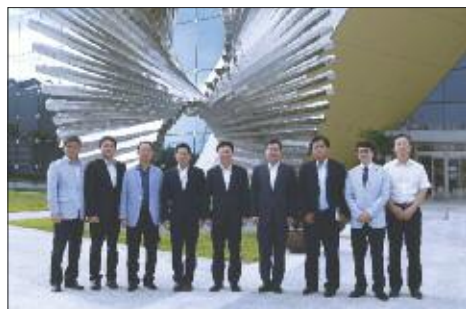
전국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임 G7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난 9월 3일 우리 회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 회사의 김천혁신도시 이전 완료와 함께 김천시와 발전 방안 및 시정 협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박보생 김천시장을 비롯하여 전 보령시장, 부여군수, 고령군수, 대전 유성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전임 G7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우리 회사의 주요시설을 차례로 둘러보고 신문철 경영관리본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우리 회사의 노력에 공감을 표하며, 지역과 상생협력에서 많은 성과를 기원했다.

● 한국동서발전(주) 이석구 기술안전본부장 내방

2015년말 준공을 목표로 우리 회사가 종합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당진 9호기 사업의 설계 지원 및 후속 발전사업 협력에 대한 협의를 위해 한국동서발전(주) 이석구 기술안전본부장이 지난 8월 27일 우리 회사를 방문하였다. 이석구 본부장은 김천 신사옥의 주요시설을 차례로 둘러보고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서의 위상과 지역사회와 열린 소통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및 지역상생 노력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어진 김재원 플랜트본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당진 9호기의 성공적인 종합 시운전을 위한 설계지원 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외 석탄화력, 복합발전사업에 대한 양사의 공동협력 추진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국내 최초 1,000MW급 석탄화력, 당진 9호기 계통연결

당진화력 9호기 계통연결 기념행사가 지난 8월 4일 충남 당진시 석문면에 위치한 당진화력 건설현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장주옥 한국동서발전 사장, 김재원 플랜트본부장, 공급사인 MHPs/대림, 시공사인 현대건설/경남기업 임직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계통연결은 발전기를 돌려 전압 및 주파수를 송전 계통과 일치시킨 상태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다. 당진 9호기는 지난 4월 최초점화 이후



모든 기자재의 단위기기 시운전을 거쳐 이번에 계통연결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계통연결 후 연소 및 부하시험, 신뢰도운전 등 종합시운전을 거쳐 금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돌입하게 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1,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화력 9, 10호기는 최첨단 탈황 탈질 시스템과 옥내 저탄장을 설치한 친환경발전소로서 최선의 설계기술이 적용된 고효율의 최신 발전소이다.

● 신보령 1호기 최초 점화

우리 회사가 설계하고 있는 신보령화력 1호기의 최초 점화식이 지난 8월 3일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에 위치한 신보령화력 1, 2호기 건설 부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원 플랜트본부장을 비롯하여 한국중부발전(주) 박형구 발전안전본부장 등 관련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보일러 최초점화는 증기세척 전 보일러 설치공정 중의 하나로서 노내에서 보일러 등유를 최초로 점화, 연소하는 과정이다. 또한 사전에 보일러 연소기기 시운전 완료, 연료계통/통풍계통/급복수계통 등의 정상화, 소화설비 정상화, 보일러 충수 및 수질개선, 버너 정상화 및 보일러 퍼지 등의 준비를 거쳐 보일러 점화 후 점화상태, 화염상태 및 연소상태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신보령화력 1, 2호기는 1,000MW급 초초임계압(USC) 석탄화력발전소로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가 주관하고 우리 회사를 비롯하여 중부발전, 두산중공업 등이 참여한 차세대화력발전기술개발 상용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고 있는 발전소이다. 설비용량은 표준원전과 맞먹고 효율(44.14%)과 압력(265kg/cm²)도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상업운전 시 기존 발전소 대비 연간 15만톤의 연료와 35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1단계 준공

우리 회사가 종합설계를 수행한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1단계 준공식이 지난 8월 28일 거행되었다.

1986년에 시작된 방폐장 부지선정은 19년 동안 9차례의 실패를 겪었으며, 2005년에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가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2006년 1단계 사업 착수 후 9년만에 준공되었으며 사회적 갈등과제 해결의 새 지평을 열었다. 경주 방폐장은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기존에 저장되거나 또는 신규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총 80만드럼을 처분할 예정으로 1단계는 10만드럼 용량의 동굴처분시설로 해수면 기준 130m 깊이의 지하에 사일로 6개소가 우선 건설되었다. 우리 회사는 종합설계사로서 대심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종합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이번 1단계 준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회사는 경주 방폐장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중저준위처분장의 해외 수출을 준비하고 아울러 미자립 기술을 확보하여 향후 우리 회사의 신성장동력이 될 후행 핵주기사업의 하나인 사용후핵연료처분시설 건설에 기여할 방침이다.



Inside Outside

동호회 동정

산우회

산우회는 지난 9월 5일 회사 임직원 및 가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악산에서 '자연사랑 등반대회'를 가졌다. 산우회를 주축으로 직지사 매표소에서 출발해 백련암, 운수암, 운수봉을 지나 비로봉(1,111m) 정상에 올랐다. 이번 '자연사랑 등반대회'는 회사 사옥의 김천이전을 자축하고 직원간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등산로 곳곳의 쓰레기와 오물 수거를 위한 자연보호 활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신문철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등반대회를 통해 직원들끼리 자연스러운 소통으로 신사옥 이전에 따른 이질감 극복과 부서간 업무 협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우 애경사



송하나 사원



천성현 사원

결혼

- ▶ 원자력)원자력기술그룹 박만홍 부장 자녀 : 7월 2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 ▶ 원자로)계측제어설계그룹 천성현 사원 : 8월 22일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 ▶ 원자로)유체계통설계그룹 김응배 대리 : 8월 29일 헤리츠
- ▶ 원자로)원자로사업관리실 송하나 사원 : 8월 29일 헤리츠

부음

- ▶ 원자력)배관기술그룹 박흥식 부장 모친상 : 7월 24일 서울아산병원
- ▶ 품질안전환경처 최동주 부장 장인상 : 7월 26일 순천 성가롤로병원
- ▶ 원자력)전기기술그룹 강민표 차장 부친상 : 7월 26일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 ▶ 원자력)원자력기술그룹 류인철 차장 부친상 : 8월 11일 대구의료원
- ▶ 원자로)유체계통설계그룹 임인영 처장 부친상 : 8월 11일 전주 뉴타운장례식장

동우회 동정

산동호회

산동호회는 7월 정기산행으로 관악산(629m)에 다녀왔다.

바둑회

바둑회는 지난 7월 24일 전우회관 사랑방에서 수담을 가졌다.

포토회

포토회는 7월 정기모임으로 한기동우회관 사무실에서 DSLR 동영상 촬영, 재생, 다룬반기 등의 강의를 개최했다.

당구회

당구회는 8월 13일 정기모임으로 17명이 참석하여 경기를 가졌다.

레인보우합주단

기악합주단 레인보우앙상블은 삼성문화센터 강당에서 합주연습을 4회 가졌다.

결혼

이종원 회원 자녀 결혼 : 7월 12일 부산 대도웨딩홀
이광모 회원 자녀 결혼 : 7월 19일 노보텔엠베서더
권창호 회원 자녀 결혼 : 7월 25일 라루체컨벤션
이용일 회원 자녀 결혼 : 8월 15일 더채플앳청담

부음

장명상 회원 모친상 : 7월 19일 건국대학병원
임동영 회원 모친상 : 7월 26일 건보공단일산병원
민경식 회원 장인상 : 8월 15일 서울아산병원



구매 한달 후 파손된 축구화제품 불량일까, 소비자 부주의일까?

Question

구입 후 한달 지난 축구화 사용 중 스티드(Stud)가 부러졌는데, 교환·환불 가능한가?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는 A씨(남, 40대)는 2014년 1월경 양산의 모 아울렛에서 시가 250,000원이 넘는 축구화를 할인가격인 129,500원에 구입했다. 이후 한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인조잔디가 깔린 학교 운동장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축구를 하던 중 신발 밑창의 스티드가 부러졌다. 이러한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

Answer

봉제불량·접착불량·염색불량 등 제품하자인 경우에만 무상 수리 가능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신발’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 수리를 제공해야 한다. 수리가 안 될 경우, 교환·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A씨 사례처럼 축구화의 미끄럼 방지용 스티드가 떨어지거나 부러지는 경우, 심의 기구 등에서 내구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급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품 구입시에 축구화 사용 장소 등에 대한 표시 사항이 있거나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서 사용하다 훼손됐을 경우에는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구입한 축구화가 천연잔디에서만 사용 가능한 제품이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거나 표시 사항이 있음에도 인조잔디에서 사용하다 스티드가 부러졌다면 배상을 받기 어렵다. **ES&C**

축구화 구매 Tip

고가의 제품이라고해서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고가의 축구화는 프로 축구 선수들이 뛰는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축구화 구입 시에는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장소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축구화인지, 혹은 천연잔디구장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축구화인지 등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찾으려 한다.

다.시. 날.자.

홀씨가 날아 새로운 생명이 되기까지
추운 겨울 추위와 싸워야 했고
건조한 봄날 가뭄에 목말라 했고
여름 장마에 돌틈에서 움츠려야 했다
넉넉하고 풍성한 가을날...

이제! 다.시. 날.자.

우리가 꿈꾸었던 날개를 활짝 펴고
힘차게 날자!

글·사진 | 김영규 품질안전환경처 부장